

유 학 보 고 서



파 견 대 학	함양사범대학교(咸阳师范学院)
파 견 기 간	2017.02.20. ~ 2018.01.06.
학과 및 학년	역사·철학상담학과 3학년
성 명	지재선
제 출 일	2018.01.12

* 유학보고서는 해외파견 유학/연수 참가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앞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위해 기록되는 자료입니다. 유학에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파견대학 및 유학관련 사진(파견대학/기숙사내부 등)을 반드시 첨부하기 바랍니다.

1. 파견대학 및 날씨, 음식, 지역 등 소개

학기시작:

2017.02.27./2017.09.04

학기종료:

2017.06.16./2017.12.29

방학: 2017.06.17.~09.03

학교주소: 陕西省咸阳市渭城区文林路咸阳师范学院

2017년 1년간 중국 함양사범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학생입니다. 함양사범대학교는 중국 섬서성 함양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병마용과 진시황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와 같은 중국 고대국가의 수도였던 서안시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인 서안과 가깝기 때문에 주말마다 놀러가서 많은 유적지들을 보고 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함양시는 사실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놀고 대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함양사범대학교가 중국에서 공항과 가장 가까운 학교라고 합니다. 대략 15분 정도 걸립니다. 공항과 인접도가 매우 좋기 때문에, 틈틈이 다른 지역으로 놀러가기 좋습니다.

우선 날씨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 서북부에 위치해 있어서 매우 건조합니다. 그리고 맑은 날씨를 보기 매우 힘들며,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공기오염도가 중국에서 제일 좋지 않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다녀오면 한국의 미세먼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의 날씨가 정말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가 보이고 맑은 날씨가 손꼽히기 때문에 그 날이면 중국 학생들이 모두 밖에 나와 빨래를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와 미스트는 여유 있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함양 지역의 음식을 함양사범대학교에 있던 한국 유학생들은 모두 좋아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황면지(黄焖鸡), 찌공바오(鸡公煲), 휘귀(火锅) 등이 있습니다. 섬서성 대표음식으로는 로우찌아모(肉夹馍)가 있습니다. 저도 중국음식 못먹는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처음 가고 며칠 동안은 조금씩만 먹고 적응하니 한국 돌아와서는 중국 음식이 그리울 정도입니다.



2. 학과 및 수업소개 (현재 이수학점, 과목수강의 난이도 등)

함양사범대학교는 유학생 유치에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유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3개의 반으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략 15명 정도이고, 가나와 짐바브웨같이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아프리카 학생들과 우리나라와의 문화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이 수업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업 중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무실에 이야기하면 고쳐주신다고 했으니, 꼭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수업은 모두 중국어 선생님들께서 중국어로만 진행하십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발음도 좋으시고 수업도 잘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중국어로만 수업 듣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야외수업도 하면서, 한 반에 10명 내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즐기면서 수업 참여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국어 느는 속도가 빠르며,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점이 함양사범대학교의 최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수업은 보통 듣기(听力), 종합(综合), 말하기(口语) 3개의 과목입니다. 여기에 학기마다 문화체험수업이 진행되는데 저는 첫 학기에는 태극권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두 번째 학기에는 중국영화수업과 서예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체험수업 역시 학점이 인정되며 보통 18학점 정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반 고급반으로 올라갈수록 신문읽기수업, 뉴스읽기수업 등 어려운 과목들이 추가됩니다. 일단 처음 교환학생 가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간단한 입학식 진행과 함께 반을 나누는 간단한 레벨테스트를 봅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시험이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수업도 듣고 싶은 과목 선택해서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형식입니다.

저는 중국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상태에서 가서 걱정했지만, 교육원에 중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시는 한국인 교수님도 계시고, 사무실에 한국어를 하실 줄 아시는 중국인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급반도 중국어 완전 기초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모두 교환학생을 마치고 중국어 실력을 돌아볼 때, 중국어 공부를 조금 알고 온 것과 아예 모르고 시작한 것과 중국어 실력 발전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기숙사 및 유학생 현황 (기숙사 숙소 및 사용요금을 정확하게 기재, 기숙사 사진 첨부)

방금 위에 썼지만, 유학생을 이제 막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15명이 채 안되며, 2018년 첫 학기는 19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인데 가나와 짐바브웨에서 왔고 15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도 잘 안 나오며, 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번 문화체험학습으로 가까운 유적지 같은 곳을 가게 되는데 그럴 때만 보게 됩니다.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 문화차이가 너무 심해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러한 점들은 사무실에 꼭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 온 학생들은 학생이자 선생님입니다. 함양사범대학교에서 영어수업을 위해 초빙한 선생님이고, 대신 어학원에서 저희와 같이 중국어 수업도 듣게 됩니다.

기숙사 또한 유학생 기숙사는 2018년에 완공되어 9월부터 입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학생들은 중국인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구기숙사는 시설이 좋지 않지만, 1인 1실 총 2명에서 생활했고, 신기숙사는 시설은 매우 좋으나 2인 1실로 총 6명이 생활했습니다. 저는 첫 학기는 신기숙사에 살고 이후에는 구기숙사로 옮겼는데, 구기숙사가 시설은 많이 떨어지지만 매우 만족했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아파트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하지 못했고, 한 번 고치러 기사님이 오는데 보통 1~2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러한 점이 불편했고, 기숙사가 다 똑같지 않다보니 서로 불만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러한 점들은 이제 유학생 기숙사가 생기니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 지어지고 있는 유학생 기숙사는 2인 1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신기숙사 비용은 한 달에 450원(元)이었으며 한 학기에 4달분을 지불해 첫 학기는 총 1800원(元)을 냈습니다. 구기숙사는 한 달에 350원(元)으로, 총 1400원(元)을 냈습니다. 전기료는 저희가 따로 지불해야하며, 충전식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는 서비스센터 건물로 가서 전기카드를 먼저 충전하고, 충전한 카드를 집에 꽂아서 전기량을 매일 확인하며 부족한 전기는 저희가 직접 충전하는 형식입니다. 중국은 전기료가 매우 저렴해서 한 학기에 한 사람 당 총 100원(元)정도로 충분하게 생활했습니다. (전기는 개인이 사용하는 만큼 달라지고, 여자 분들이 남자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해 충전을 자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기숙사는 가스비를 직접 충전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기 충전하듯이 충전하였고, 대략 한 학기에 총 한 사람당 50원(元)정도 충전했습니다.

(앞으로 오시는 유학생분들은 유학생 기숙사에 입주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던 기숙사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식비, 용돈, 책, 핸드폰 등의 기타 생활비(학비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소요비용)

함양시는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도시입니다. 하루가 빠르게 발전하고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한 조금씩 오릅니다. 하지만 함양시의 물가는 정말 어느 곳보다도 저렴합니다. 정말 저렴해서 놀랄 정도인데, 야채 1개당 거의 대부분 1원(元)이며, 학식의 한 끼 가격은 보통 8원(元)입니다. 식비는 정말 아무리 많이 먹고, 낭비하며 써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 주변도 비싸야 15원(元)내외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야시장이 조그마하게 열리는데 정말 추천합니다. 야시장도 보통 5~8원(元)가격으로 저렴하고, 중국의 음료가게도 보통 6~10원(元)정도로 아주 저렴해 한국은 물론 중국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저렴합니다.

핸드폰은 먼저 중국가게 되면 도우미와 함께 유심을 사러 가게 됩니다. 유학생 분들은 모두 中国联通 통신사에서 개통하게 되는데 보통 한 달에 36원(元)하는 요금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중국 요금제도 또한 충전식이며, 먼저 1일이 되면 한 달의 요금을 충전하고, 나중에 다 쓰면 다시 사용할 만큼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식입니다. 나중에 충전한 요금은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아직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터넷 검열이 심하고, 인터넷의 속도가 많이 제한이 됩니다. 와이파이도 물론 안되는 날이 더 많으며, 페이스북과 구글은 vpn없이 절대 들어가지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잘 들어가지지 않고 새벽과 이른 아침시간에만 잘 됩니다. 그래서 전 넉넉히 쓸 수 있는 56원(元) 요금제를 사용했으며, 요금제 또한 한 해마다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도우미와 함께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여행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용돈 받으시고 잘 모아서 여행 많이 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이 학교를 선택한 후배들에게(장단점 등)

저는 중국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왔고, 함양시가 서안과 가깝다는 이유와 한국인이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전 함양사범대학교를 선택할 것이고, 또 갈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함양사범대학교를 생각할 것입니다.

함양사범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인이 많지 않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자주 나가게 되는 옆의 도시 서

안만 가더라도, 한국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한국인 유학생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디를 가나 한국인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고, 중국인 친구를 만나게 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력이 더디게 늘 것입니다. 하지만 함양사범대학교의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을 아주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교류하기 쉽고, 재밌게 놀고 친해져서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도 적당히 있으면서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활발히 교류하고, 한국에 대해서 중국인들에게 알려주면서 서로에 대한 문화를 알아가고 차이를 인정하게 되면서 가까워지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중국어 실력이 늘게 되고 중국을 빠르게 이해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항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여행다니기에 매우 좋습니다. 물가도 저렴하다보니 많이 아껴서 문화체험으로 여행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확실히 견문이 더 넓어지고 중국어 또한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유학생이 많지 않다 보니 일처리에 있어서는 많이 더디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숙사 문제로 불편한 점이 많았고, 이야기를 해도 빠르게 처리가 되지 않고 한 달 이상씩 걸려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문제는 이제 곧 해결될 것이며, '이것 또한 중국의 문화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차분히 기다리면 또 다른 해결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많이 이야기 드렸고, 함양사범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도 해결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6. 유학생활동을 마친 소감

2017년 중국 유학생활동이 꿈 꾸던 것 같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해 정말 후회 없이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함양사범대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지 딱 하나 후회되는 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중국어를 미리 공부하고 가지 않은 제가 어리석었고 후회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국 정치상황이 많이 복잡했던 것처럼 한중관계도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런 경험조차도 추억이 되었고, 한중관계의 변화를 직접 중국에서 실감할 수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생활 중 꼭 해보고 싶었던 교환학생을 뜻하지 않게 갑자기 중국에서 하게 되었지만, 다시 교환학생을 어디에서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단연 다시 중국으로 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한 중국과 직접 생활해보고 온 중국은 정말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얼마나 거대한 나라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중국인들 또한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생활해보고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유학생활동을 계기로 제 미래에 대한 방향과 설계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도 중국과 관련된 것을 하게 될 것이고, 여행지를 선택해도 중국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많은 변화를 준 중국유학생활동을 경험하게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 또한 중국을 선택하여 많은 경험을 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